

마이클 폴라니의 믿음의 개념에 대한 분석

오승훈(백석대학교 기독교철학과 박사과정수료)(대학원 1-2)

논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폴라니가 주장했던 '인격적 지식'의 개념의 핵심인 믿음 개념을 분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폴라니는 우리가 객관성의 토대가운데 살아가기 보다는 인격적 지식에서 믿음의 틀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폴라니는 의심이 진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진리로 이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믿음에 대한 타당성을 논증하였다. 폴라니는 믿음의 개념을 모든 지식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며 믿음이 없이는 어떤 지식도 있을 수 없다고 논증한다. 또한 그가 믿음을 강조하면서 지식을 내면화하는 주체의 측면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 믿음에는 인식자의 헌신이 담겨있다고 언급한다. 믿음은 발견, 헌신, 소명이라는 단계로 발전한다고 논변하고 있다. 폴라니는 헌신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보편적 의도를 가진 인격적 확신의 확인을 위한 정당 근거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의 믿음 개념의 인식론적인 위치는 세 가지의 영역으로 나타나는데 정합론적인 경향과 온건화된 자연화된 인식론, 덕 인식론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폴라니의 믿음개념에 따르면, 믿음은 공동체적이며 도덕적인 지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폴라니는 신앙이란 감정이나 의지의 작용만이 아니라 지성을 포함한 전인격을 바쳐 참여하는 인격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 논문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즉 오늘날 현대인식론에서 무시되어 온 믿음 개념을 폴라니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필자는 폴라니의 인식론은 정합론적 경향과 자연화된 인식론적 경향, 덕 인식론적인 경향성이 있다고 규명하였다. 여기서 기독교의 믿음과 폴라니가 언급하는 믿음에는 권위를 믿는다는 점에서 있어서 유사점이 있다. 인격적인 지식이 신앙과 학문에 적용될 수 있는 측면은 다음과 같다. (1) 인식에서 권위에 대한 믿음의 토대를 강조한다. (2) 지식의 초월성이다. 즉 인간의 이성의 한계와 무지를 인정하고 과학도 계시의 권위를 수용한다. (3) 지식의 인격적인 헌신을 강조한다. 또한 폴라니에게 있어서 과학과 형이상학은 분리될 수가 없다. 하지만 폴라니가 이러한 긍정적인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될 점이 있다면 믿음의 일반화의 문제와 다양한 패러다임이 공존하고 있는 영역에 있어서 진리치를 부여하는 엄밀성의 문제를 제기 한다.

주제어: 신앙과 학문, 믿음, 인격적 지식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I. 들어가는 말

전통적으로 플라톤 이후에 사람들은 지식의 필요충분조건을 정당화된 참된 믿음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믿음을 정의할 때 인식자가 한 명제에 대하여 갖는 태도 혹은 의견 정도로 생각해 왔었다. 최근에 게티어의 논의 이후 정당화된 참된 믿음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인식론자들은 믿음조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학문의 영역에서도 믿음을 언급할 때 믿음은 단지 의견이며, 주관적인 영역으로 간주하였다. 즉 정당화된 참된 믿음을 정의할 때 많은 철학자들은 인격자, 주체의 영역을 간과하였다. 그 결과 지식과 인격의 상관성 영역까지 소외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서, 필자는 폴라니¹⁾가 주장했던 ‘인격적 지식(personal knowledge)’²⁾의 개념 가운데 믿음 개념을 분석할 것이다. 그의 학문영역은 물리화학적 현상과 정치와 경제 현상, 예술과 신앙의 영역까지 포괄한다. 비록 그의 사상이 방대할 지라도 사상의 근저에는 하나의 통일성이 있다. 폴라니는 인격적 지식이라는 새로운 지식 개념을 통해서, 인식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암묵적 차원의 지식을 주장한다. 그는 그 당시 인간과 분리된 객관적 지식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기존의 지식 개념 대신에 인격적이며 인식자의 헌신이 내포된 지식 개념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마이클 폴라니가 어떻게 신앙과 학문의 총체적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사상을 나타냈는지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필자는 그의 사상을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신앙과 학문으로 고민하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도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필자는 이와 같은 연구가 신앙과 학문의 상관관계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좋은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기독교의 믿음과 그가 언급한 믿음을 비교함으로써 고려해야 될 점도 언급하고자 한다. 하지만, 필자는 폴라니의 믿음의 대한 다양한 논의가 현대인식론에서 어떻게 논쟁되지는 지면상 제한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1) 폴라니는 헝가리 태생의 유대인이며 의사, 물리화학자, 철학자의 삶을 살았다. 폴라니의 사상의 핵심은 인격적 지식이다. 폴라니는 전체주의가 과학과 인간의 문화 전반에 주는 위협을 주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과학의 가치와 자유를 옹호하고자 인격적 지식을 주장함으로써 그의 사상을 구축하였다. 폴라니의 사상은 자연과학, 경영학, 종교철학에 영향을 주었다.

2) personal knowledge 대한 번역을 김만희, 「과학지식의 객관성에 관한 고찰: 마이클 폴라니의 인식론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3. 1(2003), 100-116, 폴라니, 『개인적 지식』, 표재명 역(서울: 아카넷, 2001)은 개인적 지식이라고 번역하였고, 강영안, 『주체는 죽었는가: 현대철학의 포스트 모던적 경향』(서울: 문예, 1996), 장상호, 『Polanyi 인격적 지식의 확장』(서울: 교육과학사, 1994)는 인격적 지식이라고 번역하였다. 또한 엄태동, 「교육적 인식론 연구: 키에르케고르와 폴라니의 교화적 방법에 대한 교육학적 고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에서 당사적 지식라고 하였다. 필자는 번역의 다소 모호한 개념이 있지만 인격적 지식이라는 개념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개인적이라는 번역과 당사적이라는 번역을 사용할 경우 주관성의 측면을 부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가 인격적이라는 의미를 사용하는 이유는 주관성의 영역을 넘어서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지식과 주체의 상관관계를 표현함에 있어서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II. 전통적 지식

1. 지식의 조건

플라톤은 지식을 “정당화된 참된 믿음”으로 분석하였다. 지식에 대한 전통적 표준분석으로 불리는 플라톤의 지식의 조건은 완벽한 분석으로 수용되어왔다. 전통적으로 명제적 지식의 필요충분조건은 믿음, 참, 정당화 조건이다. 즉 지식은 참인 정당화된 믿음으로 생각되어 온 것이다. 오랫동안 인식론자들은 전통적 표준분석을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였다.

‘어떤 사람 S가 명제 P를 안다’의 필요충분조건은

- 1) S가 P를 믿는다. (믿음의 조건)
- 2) P가 참이다. (진리 조건)
- 3) S가 P를 정당한 근거에 의해서 믿을 때, S는 P를 안다. (정당화의 조건)

위의 예는 한 믿음이 참이라고 해도,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식의 분석에서 세 조건은 개별적으로는 S가 P를 아는 것의 필요조건으로 간주되고, 서로 결합했을 때는 충분조건으로 간주된다. 이 분석에 따르면, 안다고 주장할 경우 주장한 명제가 옳아야 하고, 그가 그것을 믿어야 하며, 그렇게 믿는 그의 믿음이 정당화되어야 한다. 이들 세 조건은 각각 진리 조건, 믿음 조건, 정당화 조건으로 불린다. 따라서 믿음은 지식의 주관적 조건이고, 참이 객관적 조건인 것에 반해 정당화는 규범적인 조건이다. 지식이 정당화된 참된 믿음이라는 규정은 플라톤의 『테아이테토스』에서 등장하고 있으며 여전히 현대 인식론자들은 이것을 지식에 대한 정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인식의 목표는 참을 추구하고, 거짓을 피하고, 지식과 단순히 참인 믿음을 구분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즉 전통적인 지식의 정의에 들어있는 정당화 조건은 믿음과 믿음의 참 사이의 연결을 완벽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당화된 믿음은 이 인식적 목표에 부합하는 믿음이다.(J. P. Moreland & William Lane Craig, 2003: 73)

2. 믿음 개념의 난제

일반적으로 인식론자들은 지식의 표준분석 가운데, 믿음을 지식의 조건으로 삼고 있다. 일반적으로 S는 P를 믿어야 하는데, S가 P를 안다는 믿음 조건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는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식의 조건 중 믿음에 대해서 정의해 보아야 하는데, 이 영역의 주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 영역은 심리철학, 심리학, 인지과학, 종교철학 가운데서도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

선 믿음은 비교적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S가 P를 믿고 있다는 것은 S가 P를 참이라고 ‘받아들인다.’ 혹은 ‘인정 한다.’ 또는 ‘P라는 명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S가 믿음과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맞다’, ‘아니다’ 그리고 ‘모르겠다’의 세 가지이다. 하나의 믿음이 성립하려고 할 경우 일정한 명제와 이에 상응하는 인식자의 심리적 태도라는 의미에서 명제적 태도라고 한다. 즉 믿음은 인식 주관, 명제 그리고 인식주관과 명제 사이의 관련 방식의 세 요소로 이루어진다.(김기현, 2005: 33-4)

믿음이 인식 주관, 명제 그리고 인식주관과 명제 사이의 관련 방식의 세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할 경우 인식자도 함께 고려해야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덕 인식론자들이 이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Fairweather, A. and Zagzebski, L., (eds.), 2001:3-4) 최근에 들어서 이들은 믿음을 덕(Virtue)³⁾과 관련해서 왕성하게 논의하고 있다. 작제브스키는 덕의 기능적 측면과 성품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두 그룹의 학자들로 나누어서 고찰하였다. 먼저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덕 신빙론(reliabilism)자들이 있다.⁴⁾ 이들은 지적 덕목이 사람들을 믿을 만한 인식 능력 또는 비전으로 인도하며, 또한 덕목을 자기성찰, 기억 등이라고 말하면서 지적 덕목의 기능적 측면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덕의 책임주의자들(responsibilists)은 지적인 중요한 습성으로써 세심함과 공평함, 편견 없음, 지적인 끈기, 용기와 같은 관습을 언급한다. 이들은 주로 지적 덕목을 성품과 관련해서 강조하고 있다.⁵⁾ 이와 같이 덕 인식론자들이 믿음을 덕과 관련된 부분으로 본다면, 믿음과 덕은 인식자와 관련되어 있고 다양한 개념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한 측면만 논의하기가 어렵다.

III. 폴라니의 믿음개념

1. 믿음과 의심

1.1 믿음

지금까지 필자는 현대인식론의 논의에서 믿음 개념의 다양한 난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 가운데 필자는 폴라니의 논의를 보려 한다. 폴라니는 ‘P를 믿는다’와 ‘P가 참이다’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P를 믿는다.’는 현신을 포함하기 때문에 믿음⁶⁾은

3) 일반적으로 덕을 도덕적 측면으로 보는 측면이 있지만 이들은 윤리적 측면만 아니라 지적 탁월함 혹은 지적 덕목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4) 덕 신빙론자 중에 기독교철학자는 폴란팅가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5) 덕 책임주의자의 입장에 있는 기독교철학자는 작제브스키가 있다. Fairweather, A. and Zagzebski, L., (eds.), *Virtue Epistemology: Essays on Epistemic Virtue and Responsibi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3-13.

6) 폴라니에 따르면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믿음은 인간 이성의 범위에서 영원히 벗어나 있는 것을 말한다. 신의 은총을 믿기에 종교적 사고를 종교적 권위에 복종시키려 한다. 그러나 폴라니가 믿음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종교적 신앙이나 교리(dogma), 권위를 세우려는 데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이러한 믿음의 틀을 사용해서 객관주의의 형식성을 비판하려는 데 있다. Michael Polanyi, *The Tacit Dimension* (Garden City: Doubleday &

인식 주체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것을 객관적인 형태로 명확하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도 어렵다. 믿음은 오히려 주체의 마음, 즉 암묵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폴라니의 관심은 앎의 암묵적 측면에 있다. 우리가 알기는 하지만 증명할 수 없는 것이며, 그리고 이 믿음은 말할 수 있는 앎의 토대이며, 지식의 타당성을 보장해 주는 지식이다. 폴라니는 신뢰의 바탕을 둔 틀(fiduciary framework)을 중심으로 자신의 사상을 세워갔다.

1.2 의심의 비판

폴라니는 근대철학에 있어서 의심의 원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한다.(Michael Polanyi, 1962: 269-298참조) 폴라니의 의심에 대한 비판점을 좀 더 살펴보자. 우선 S가 P라는 명제를 믿는데, S'는 그동안 다른 의심받지 않은 의심을 믿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의심한다는 것은 또 다른 명제를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 (1) S는 P를 믿는다.
- (2) S'는 S의 P를 의심한다. = S'는 ~P를 믿는다.
- (3) S''는 P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믿는다.

폴라니는 의심의 원리가 양자택일에 따라 P와 ~P를 선택하는 데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P를 참으로 확인하는데 반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부류를 폴라니는 (2)를 모순적이라 지적하고, (3) 불가지론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2)의 사례를 폴라니는 과학의 역사가운데 쉽게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언급한다. 그는 과학의 역사를 살펴 볼 경우 확인과 모순이 논리적으로 동등한 것에 대해 많은 사례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즉 (2)의 사례는 언제나 반반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폴라니는 (3)의 문장을 불가지론적 의심의 영역 안에서 두 가지의 그룹으로 나눈다.

- (4) S는 P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믿는다.
- (5) S''는 P가 입증될 수 없다고 믿는다.

(4)잠정적 형식의 불가지론적 의심과 같은 경우는 미래에는 논증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5)최종적 형식의 불가지론적 의심과 같은 경우는 미래에도 P가 논증될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부정한다. 따라서 개별 언명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여전히 믿음의 내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S는

Company, 1967), 61-62.

P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믿는다.>, <증명 불가능을 믿는다.>라는 확언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폴라니는 불가지론적 의심의 영역을 법정, 자연과학, 종교의 영역까지 살피고 있다. 먼저 그는 법정의 영역에서도 의심은 합당하게 의심되어야 한다 말한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도 도덕적 확실성에 기초하며 이것도 합당하게 의심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자연과학의 영역에는 공인된 과학적 증명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다. “과학자는 자신이 거의 모르거나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 주제에 대해서만 엄격히 불가지론적일 수 있다.”(Michael Polanyi, 1962: 276) 셋째, 종교적 의심 영역이 있다. 기독교 신앙의 영역은 관찰 가능한 영역을 넘어선다. 그래서 실험이나 사실기록으로 기독교의 신앙을 증명할 수도 없고 반증할 수도 없다. 특별히 폴라니는 종교적 의심의 인정을 정당화 하지 않는다. 폴라니는 더 나아가 기독교를 공격하는 불가지론자에게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토대를 새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 합리론자들이 종교에 대한 지나친 공격에 감사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진리를 손대지 않은 채 뒤에 남겨둘 오류에 대한 보편적 해결책으로서 의심의 인정을 거의 정당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진리는 신님의 유일한 외재적 극점이며, 모든 신님을 파괴하는 것은 모든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폴라니, 2001: 436)

위의 논의를 정리한다면, 폴라니는 누군가 아무리 불가지론적 의심을 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모든 진리를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의심의 방법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극단적 회의주의가 있는 반면에 창조적 회의주의가 있다. 폴라니는 방법론적 회의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 회의주의를 비판 하였다. 또한 그는 극단적 회의주의자들은 결국 불가지론적 의심의 태도를 취하게 된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그는 이들이 진리는 입증되지도 않고 논증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폴라니는 이러한 의심이 우리의 진리개념을 전적으로 오류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즉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증명할 수 있는 것을 강화는 하겠지만, 알면서도 증명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모호한 발언으로 대처하게 만든다. 따라서 폴라니는 의심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차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믿음이 좀 더 근본적이라고 한다고 강조하며 의심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수 없다고 논증한다. 사람들이 전적으로 의심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하지 않고 고수하고 있는 과학, 윤리학, 정치학 등에 대한 광범위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의심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밀받침해주는 궁극적인 부분은 믿음이라 할 수 있다.

2. 믿음의 틀

2.1 인격적 헌신의 믿음

폴라니는 믿음이 없이는 어떤 지식도 있을 수 없으며 믿음은 모든 지식의 원천이라고 주장한다. 폴라니는 이와 관련된 암묵적 동의와 지적 정열, 전통의 인정, 문화유산, 같은 생각을 가진 공동체가 사물의 본성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형성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한다. 폴라니는 ‘믿음의 틀’(fiduciary framework) 없이는 어떠한 지적 활동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폴라니는 이 부분에서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한다. 그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인 믿어야 이해할 수 있다(nisi credideritis, non intelligitis)(Michael Polanyi, 1962: 264-268참조)는 것을 수용해서 암묵적 지식이라는 사상을 수립하게 된다.

폴라니는 우리의 지식의 본질을 설명함에 있어서 믿음의 선언으로 체계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폴라니는 ‘P를 믿는다’와 ‘P가 참이다’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S가 ‘P를 믿는다.’는 인식자의 헌신(commitment)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인식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폴라니는 S가 P를 믿는다는 명제를 객관적인 형태로 명확하고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도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믿음은 오히려 주체의 마음, 즉 암묵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믿음을 강조하는 목적은 지식을 내면화하는 주체의 측면을 강조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폴라니는 실험을 할 때 측정하고 관찰하는 과정에도 측정자나 관찰자 개인의 인격적인 헌신을 한다고 말한다.(Michael Polanyi, 1962: 58) 또한 폴라니는 우리가 자료나 실험결과, 가설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고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결정하는 데도 주체의 인격적 판단이 작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우리가 이러한 인격적인 헌신을 배제하고는 지적 탐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즉 인간의 지식이란 자연과학적 지식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형식화되어 있는 규칙이나 방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생겨나지 않는다. 따라서 폴라니는 앎의 과정에는 예술이나 기예(skill)처럼 지식을 사용할 때 언제나 인격적 참여와 판단, 직관 등이 작용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인격적 헌신을 한다고 말한다.(Michael Polanyi, 1962: 49-65참조) 필자는 이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폴라니가 말하는 헌신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한다.

- ① “ $2 + 2 = 4$ ”
- ② “언어에는 문법이 있다.”
- ③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 ④ “예술은 아름답다: 예술가는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 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①는 수에 관한 진술이고 ②은 언어에 관한 진술이고 ③물리적 현상에 대한 일상적 진술이며 ④은 예술적 가치에 대한 진술이라 할 수 있고 ⑤는 종교적인 신앙의 진술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⑤의 진술이 가장 확실하고 참된 것으로 생각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확증하기 어려운 진술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⑤보다는 ④가, ④보다는 ③, ③보다는 ②가, ②보다는 ①이 더 쉽게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의미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발언은 수학적, 물리학적 발언보다 그 진리치를 확증하기가 훨씬 어려운 것 같다. 하지만 폴라니는 이와 같은 우리의 생각들을 전복시키며 이와 같은 명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한다. 이 주장은 단순한 문장의 참과 거짓만을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어떤 전통 가운데 있는지를 반성하게 하고 있다. 더 나아가 폴라니는 단지 정당화된 참된 믿음에 대해서만 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자에 대한 지적열정과 헌신에 대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첫째, 폴라니는 믿음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언어의 사용과 수학의 공리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여러분이 특정한 영어의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어떤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의심한다면, 영어사전은 다른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을 사용한 정의를 들어 이런 의심을 쫓아낸다. 그리고 그런 정의의 유의미성은 그 순간 의심받지 않는다. 이런 종류에 대한 탐구는 언어의 사용에서 점차 확증될 것이다.

우리가 수학의 공리화에 대해 발견했던 것을 기억하라. 즉 공리화는 다시 수학적 추론의 실행에 포함된 믿음을 공표하는 것이었다. 공리화된 체계는 따라서 순환적이다. 다시 말하면 수학에 대한 우리의 이전의 용인은 수학의 공리에 권위를 부여하고, 그런 후에 그 공리들로부터 우리는 반대로 모든 수학적 논증을 연역해낸다.(폴라니, 2001: 441)

이와 같이 우리는 언어의 문법적인 권위와 수학의 공리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폴라니는 만약 이와 같이 믿음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인간은 완전히 교육받지 않은 상태가 될 것이고 저능 상태가 된다고 설명한다.(Michael Polanyi, 1962: 295-296)

둘째, 폴라니는 과학의 전제들을 믿는 것을 언급한다. 폴라니는 이러한 믿음이 인식자의 탐구의 영역을 확장시켰고 과학에서도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콜럼버스로 하여금 대서양을 넘어 인도를 찾으러 가게 한 것이 이런 종류의 힘이라는 것이다.(Michael Polanyi, 1962: 277) 따라서 믿음은 발견의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폴라니에 따르면, 이것은 과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말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과학의 전통과 조직화된 권위 모두를 인정한다. 그는 또한 과학이란 주제를 확인하는 데 있어 현존하는 과학적 견해를 유력한 권위로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최상의 우월한 권위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과학의 전제를 한정하는 것은 우리의 주제를 불완전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과학자의 기본적인 믿음과 가치 안에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사람을 한 과학자로 인정하는 것은 그를

과학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가 많은 방식으로 잘못했던 가능성까지 받아들인다고 말한다.(Michael Polanyi, 1962: 170-171)

셋째, 폴라니는 예술가와 과학자 혹은 예술과 과학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폴라니는 예술을 언급하면서 피타고라스의 예를 설명한다. 피타고라스는 당시 수학 법칙과 함께 음악적 평가를 지속시켰다. 그는 이 둘은 다른 것 같지만 다른 종류의 질서와 아름다운 사이의 있는 유사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그는 예술가는 자신이 믿고 정해 놓은 평가의 기준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을 위해 예술가로서 창조력과 분별력을 최고로 나타낸다. 동시에 그는 과학이론 역시 그것이 거짓이라면 아름답지 못하고, 그 이론이 실행 불가능한 이론이라고 할 경우 독창적이지 못하다고 말한다.(Michael Polanyi, 1962: 195, Michael Polanyi and Harry Prosch, 1975: 95-119참조)

믿는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만약 누구라도 의심을 삶의 기초에 두게 된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의 모든 토대를 의심하게 되기에 결국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힘들게 된다. 또한 누군가가 의심을 삶에 기초에 두겠다는 것 역시 믿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폴라니는 이러한 자신의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핵심 개념인 암묵적 지식을 논의한다. 이것은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을 통합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이러한 통합할 수 있는 힘의 작용에는 믿음이라는 인격적인 요소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폴라니의 주장을 개인의 막연한 열정과 무차별한 헌신으로 오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막연한 헌신과 인격적인 헌신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폴라니의 대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신이 기울인 노력의 평가와 안내를 위한 과학적 기준에 그가 복종하다는 것은 이런 기준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거나 전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의미이다. 자신의 정신적 노력을 추구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책임 있는 것으로 여기는 용어의 일부분으로서 자신에 대한 보편적 지적 기준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 기준을 알 수 없다. 나는 내 헌신의 상황 내에서 사실, 지식, 증거, 실재 등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와 관련되어 있을 때 사실, 지식, 증거, 실재 등에 대한 나의 추구를 통해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내가 그것들에 헌신하고 있는 한 적용될 헌신의 목표에 대한 적절한 지시이다.(폴라니, 2001: 461)

폴라니가 상황 내에 있는 사실, 지식, 증거, 실재 등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회 내에서 용인되는 기준 틀을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폴라니에 따르면 이 진정한 헌신은 사회구성원이 공표하는 신앙고백이라고 한다.(Michael Polanyi, 1962: 321) 하지만 막연한 헌신은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하고 공표하는 신앙고백과 전문가 집단의 현실적 합의를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폴라니는 이러한 사회구성원들이 공표하는 신앙고백을 충실히 따르고 그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추구하고 그것들에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인격적 헌신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헌신은 점진적으로 ⑤의 진술과 같은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2.2 소명을 향한 헌신

이제 폴라니는 우리에게 “보편적 의도를 가진 책임감 있는 판단”(Michael Polanyi, 1962: 322)에 대해 묻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 물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함으로써 문제를 풀어가고자 한다. 폴라니에 따르면, “신중한 지적 헌신의 정당화를 믿기 때문에, 나는 개인 존재의 우연성을 우리의 개인적 책임감의 실행에 대한 구체적 기회로서 받아들인다.”(Michael Polanyi, 1962: 322) 폴라니는 이러한 판단과 책임감이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넘어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결국 폴라니는 책임감 있는 헌신이 중요한 행위를 만든다고 언급한다. 우선 폴라니가 말하는 헌신에 대한 믿음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헌신에 대한 나의 믿음은, 믿음이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종류의 헌신임을 말했었다.”(Michael Polanyi, 1962: 323)

폴라니에 따르면, 책임감과 헌신은 우선 우리 자신에게서 출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러한 책임감과 헌신은 어디에서 오는가? 폴라니가 주장하는 헌신은 인간의 내재적인 요소에서 출발하는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적인 부분에서 오는 것일까? 폴라니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우리가 충분한 지적 능력을 되찾는 단계는 기독교의 타락과 구원에서 비롯된다. 타락한 인간은 역사적으로 주어진, 그리고 주관적인 인간 정신의 조건과 동일하다. 그 조건에서 우리는 영혼의 은총으로 구원 될 수 있다. 성취 불가능한 반성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술(technique)은 우리가 용인하는 의무의 수행에 몰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공인된 불확정성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것을 보유할 과제를 갖고 있다. 그런 불확정성은 그 과제를 희망 없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상술 가능한 능력이 의지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힘을 만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이런 희망은 하나님에 대한 실마리이다.(폴라니, 2001: 493)

여기서 폴라니는 지적 능력을 다시 한 번 되찾는 단계를 기독교 신앙에서 찾는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볼 때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폴라니는 그러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⁷⁾을 향한 믿음을 수용한다. 폴라니는 공인된 불확실한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편성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우리는 불가피하게 불완전하다는 점이며, 모든 것을 포용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함으로써만 최고의 상상 작업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 자신을 던져 넣을 수 있다고 언급한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의 영역인 완전한 평화와 소망 안에 내주(indwelling)할 수 있고 우리는 완전하게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불완전함 가운데에서도 마침내

7) 폴라니는 자신의 주저인 폴라니, 『개인적 지식』, p. 427. 신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에게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I* (London, 1953). pp. 227-233, pp. 262-263. 읽도록 권하고 있다. 그는 종교철학의 영역에서 신의 존재증명에 대해서 자신이 논의하지는 않고 티리히의 논의에 의존하고 있다.

의에 대한 주립과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의(義)에 대한 그의 같은 주립과 목마름으로 우리를 불타게 하는 정수를 우리 안에 남겨 놓았던 것은 바로 기독교의 단호한 도덕적 요청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동일한 기독교 안에서 도덕적 완전주의의 독성에 대한 해독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종교가 우리에게 말한 바는, 우리는 불가피하게 불완전 하는 점이며 모든 것을 포용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함으로써만 최고의 상상 작업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 자신을 던져 넣을 수 있다는 점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의 영역인 완전한 평화와 소망에 내주할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하게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불완전함 가운데에서도 마침내 의에 대한 주립과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폴라니, 해리프로시, 1992: 295)

우리가 이러한 의에 대한 목마름과 주립을 채우고자 한다면 권력과 이익에 사로잡혀서 움직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약자를 배려하는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폴라니는 “헌신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보편적 의도를 가진 인격적 확신의 확언을 위한 정당 근거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폴라니는 헌신을 하는데 다양한 권위가 있지만 그 권위가 공통되는 상호 조정의 방법의 합의(consultation)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말한다. 폴라니는 상호조정 방법에서 책임감을 요구하되, 그 방법은 의무감이 생기게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Michael Polanyi and Harry Prosch, 1975: 199) 결국 이러한 의무감과 책임감은 진리에 대해서 활동하게 된다. 여기서 두 가지 수준에 의해서 활동할 수 있다. 첫째는 낮은 수준, 즉 권력과 이익이라는 야망의 수준이다. 두 번째는 보다 높은 도덕적 의무의 수준이다.(Michael Polanyi and Harry Prosch, 1975: 205) 그러나 도덕적인 의무를 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진리의 다양한 부분을 열어두고 지식에 대한 헌신과 열정을 끊임없이 주장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수용될 수 있는 점이 있다. 이러한 영역에서 폴라니는 의(義)에 대한 주립과 목마름으로 우리를 불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단호한 도덕적 요청이라고 보고 있다.

3. 지식의 인격성과 초월성

3.1 지식의 인격성

폴라니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를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자주 비유한다. 폴라니는 특정한 인간의 기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한계가 없이 끝없이 펼쳐지는 것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아무에게나 쉽게 보이지 않는 것을 실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 믿음이 요구되고, 그 믿음은 더욱 강한 자발적인 헌신을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진리에 대한 과학자의 자세와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인의 자세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Polanyi, 1974: 324, 279-286. 참조). 이러한 믿음은 자신의 몸 안에서 시험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3.2 지식의 초월성

보통 인식론은 인간이 진리를 알 수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그리하여 인간이 알 수 있는 지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감각의 확실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가려내고 그 다음에는 확실한 지식에서 출발하여 인식의 범위를 가능한 최대로 확장하여 지식의 한계에까지 도달하려고 한다. 그러나 기독교 인식론의 출발점은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부분이다. 폴라니 역시 지식에 있어서 경험적이고 이성적인 부분을 수용하지만 이것이 모든 궁극적인 부분만은 아니라고 단호히 말하고 있다.

과학적, 예술적, 종교적, 문화적, 도덕적 의미와 가치는 믿음을 소중하게 다루었는데 현대가 그것을 ‘보는 방식’을 후대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대대로 물려진 것들이다. 폴라니는 과학의 이론도 증명할 수 없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으며, 어떤 지식보다도 명증하고 선형적 요소를 가졌다고 믿어지는 수학의 경우도 예외가 아님을 역설한다. 폴라니 기독교에 있어서 다른 부분보다도 중요한 것은 초논리적 부분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다.

우리는 우리로서 극복할 수 없는 한계성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난다. 그렇다고 ‘올법’에 대한 의무에서 자유로워지지는 않으며, 따라서 우리는 만족할 수 없게 된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 승리를 위해 그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허해진다.(폴라니, 해리프로시, 1992: 219)

우리는 창조의 이야기, 기적적인 탄생의 이야기, 십자가에 못박히심과 부활의 사건에서 순수하고도 보편적인 감정의 방식으로 인생과 우주의 전반적인 중요성을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의미를 깨닫는다.(Michael Polanyi and Harry Prosch, 1975: 153) 우선 기독교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신관(神觀)을 꼽을 수 있다. 성경에 바탕을 둔 신관을 전제로 하지 않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할 수 없다. 기독교철학을 논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관에 근거해 있어야만 된다. 그의 사상의 상당한 부분은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 어떤 지식도 얻을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즉 ‘믿음의 틀’이 없이는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지 않고 반증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저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판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수용해야 된다.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형이상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폴라니에게서는 과학과 형이상학이 서로 다른 차원으로 분리되지 않는다. 형이상학적 믿음은 과학 자체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과학은 형이상학적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진, 선, 미의 정의 본질적 가치에 따라 현실의 드러냄을 목적으로 삼는 인간의 통합적 행위이다. 따라서

폴라니에게 형이상학은 두 가지의 차원을 갖는다. 한편으로 형이상학에는 주관적인 차원이 있는데, 도덕적 태도, 지적 열정, 이론의 미적 차원에 대한 감각, 종교적 관점 등 주체로서의 인간의 자기 이해와 관련된 차원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형이상학에는 객관적 차원이 있다. 형이상학은 인식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인간 주체에 대한 자기 인식뿐만 아니라 대상 세계 즉 현실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함축한다. 진리에 대한 열정과 현실의 의미 추구를 자신의 과학적 활동의 본질적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과학자는 바로 그 자체로 하나의 훌륭한 형이상학자가 되는 것이다.(강영안, 1997: 274-275) 이것은 과학이 형이상학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과학이 이론적으로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부분이 있다.(마이클 피터슨외, 2006: 387-388). 폴라니는 과학의 한계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논리 실증주의의 방법과 객관적인 의미 기준(검증원리)은 폴라니만이 아니라 포퍼(K. Popper), 툴민(S. Toulmin), 라카토스(I. Lakatos), 쿤(Th. Kuhn), 같은 과학철학자들에 의해 이제 그 한계가 드러났다. (강영안, 2001: 94-124. 참조) 따라서 과학이 형이상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면에서 우리는 그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는 근대이후에 그동안 종교와 과학이 양립할 수 없으며 완전별개로 보았던 현대 사상에 반격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V. 폴라니의 믿음개념의 인식론적인 위치

1. 정합론적인 경향

폴라니의 믿음은 어떤 체계의 믿음인가? 그렇지만 폴라니는 믿음의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서 토대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식의 정합성적인 특징을 언급하고 있다. 폴라니는 러셀의 진리 대응설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러셀은 진리를 어떤 사람의 주관적 신념과 실제 사이의 일치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러셀이 허용한 용어로 어떻게 그들이 일치할 수 있는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답은 이것이다. 실제 사실은 헌신의 상황에서 보았을 때 신뢰 받은 사실이고, 반면 주관적 신념은 그것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비관여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사실을 신뢰하는 확신이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되 있는 신념이 지시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자기모순 없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관여상황 내에서 신념이 견지되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그런 헌신의 상황에서 분리시키고, 신념의 사실적 내용을 참으로서 인정하면서 동일한 신념에 헌신해 있는 것은 자기모순이기 때문이다.(폴라니, 2001: 463)

그는 러셀의 진리 대응설 즉 토대론을 위와 같이 거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응설을 비판하는 구조는 다음과 같다. 기초적 믿음의 기준으로는 **주관적 확실성(의심불가능**

성)과 **객관적 확실성(확실성)**이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토대론자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확실성이 주관적으로 해석되든 객관적으로 해석되든, 한 믿음을 이루는 명제가 확실성을 갖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토대론은 성공하지 못한다. 한 믿음이 기초적 믿음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그 믿음이 자명하거나 오류 불가능해야 하는 것이라는 토대론자들의 믿음은 과연 기초적 믿음인가, 아니면 비기초적 믿음인가? 이 믿음이 자명하거나 오류 불가능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한 기초적 믿음이 되기는 어렵다. 반면에 비기초적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지지해 주는 증거가 되는 믿음들을 토대론자들이 제시해야 하는데 그들의 논의에서 어떠한 증거도 찾기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풀라니는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풀라니는 헌신의 정합성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한 정합론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정합론은 인식정당성의 구조가 뗏목과 같음을 옹호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믿음이 정당하게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른 믿음들과 더불어 하나의 **정합적으로 잘 짜여진** 체계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이며, 이러한 고려는 모든 믿음들의 정당성 결정에 핵심적이다. 결국, 한 믿음이 정당하게 되는가는 그 믿음이 자신이 속한 체계의 **정합성**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러한 사실은 모든 믿음들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균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정합론자들은 체계를 이루는 믿음들 사이에 정당하게 되는 방식에는 어떠한 차이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Ernest Sosa and Jaegwon Kim(eds.), 2001: 137-138) 하지만 풀라니는 자신이 언급한 정합성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도 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는 우월한 지식을 언급할 때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우월한 지식은, 과학의 체계와 다른 사실적 진리들 이외에도 그 문화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옳고 우수하다고 일관되게 믿어지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풀라니, 2001: 570)

이와 같은 입장을 따르고 있다고 할 경우 풀라니는 사회적인 질서와 우리 자신의 인도를 위한 그들에 의해 제시된 기준을 따름으로 일관된 체계를 형성하는 정합론적인 입장을 표현하고 있다. 정합론도 긍정적 정합론, 부정적 정합론, 선형적 정합론과 전체적 정합론으로 구분한다. 풀라니는 긍정적 정합론의 입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 정합론과 부정적 정합론만 살펴보겠다. 긍정적 정합론과 부정적 정합론은 긍정적 근거의 존재와 논박자 모두를 포함하여 정합성을 정의하는가, 아니면 논박자의 부재만으로 정합성을 정의하는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부정적 정합론에 따르면, 한 명제에 대한 믿음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명제를 믿기 위한 별도의 긍정적인 근거를 가질 필요는 없고, 다만 그 믿음에 대한 논박자가 없는 것으로 족하다. 한 믿음이 그것이 속한 믿음 체계 내에 논박자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은 체계와 정합적이고, 따라서 정당하다는 것이다. 반면, 긍정적 정합론에 따르면, 한 믿음이 정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긍정적 근거의 존재와 논박자의 부재가 모두 요구된다. 이 이론에서는, 한 믿음이 그것이 속한 믿음

체계 내에 논박자를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를 뒷받침하는 긍정적 믿음을 역시 갖고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체계와 정합적이며, 따라서 정당하게 된다. 그의 정합성을 살펴볼 경우 폴라니는 긍정적 정합론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는 우월한 지식의 정합적 체계를 언급하고자 할 때 긍정적 정합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Michael Polanyi, 1975: 375-376)이때, 그의 긍정적 정합론에 언급하는 논박자의 부재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난다. 폴라니는 서로 다른 이질적인 주장을 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이질적인 주장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폴라니는 그의 의견을 수용하고 일관적으로 믿어지고 그 문화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있다고 할 경우에 논박자의 부재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다.

2. 온건한 자연화된 인식론적 경향

폴라니의 인격적 지식에서는 감각자극으로부터 물리적 세계에 관한 신념들에 이르는 인과적 과정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과학의 경험적 방법을 통해서 달성되지만 전통적인 문화, 종교적인 믿음들이 무시되지는 않는다. 그는 콰인의 자연화된 인식론(Ernest Sosa and Jaegwon Kim(eds.), 2001: 292-300참조)처럼 인식론에서 심리학으로 대체하지는 않지만 심리학의 형태 심리학(Gestalt psychology)의 개념을 사용한다. 형태(Gestalt)란 전체나 형상, 형태, 모습 등을 뜻하는 지닌 독일어이다. 형태 심리학자에 의하면, 개체는 대상을 지각할 때 산만한 부분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 즉 ‘형태’로 만들어 지각한다. 형태 심리학에 의하면, 그 세부요소가 무엇인지 규명할 수 없으면서도 요소들에 대한 우리의 앎을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얼굴상을 알아본다.(Polanyi, 1983: 4-5) 폴라니는 이제까지 간과된 형태의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 지식을 추구할 때 수행된 경험을 ‘능동적으로’ 조직된 결과로 본다.(Polanyi, 1983: 6) 형태심리학은 암묵적 통합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다. 폴라니는 과학의 자유의 문제를 다룰 때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 즉 인식이 일어나는 과정을 형태 심리학에 기초하여 설명한다. 형태심리학에 의하면, 우리는 얼굴모습의 그 세부 요소들이 무엇인지 규명할 수 없으면서도 요소에 대한 우리의 앎을 통합함으로써 그것을 알아본다. 형태 심리학은 인간 인식을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객관화 할 수 있다는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났다. 행동주의는 측정할 수 있는 인간의 행동의 형태에 관심을 갖는다. 그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어떤 현상을 지각할 때 분리된 요소를 하나하나 지각하지 않고 의미 있는 전체를 지각한다. 인간은 인상들을 합산하기 보다는 인상들이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파악한다. 폴라니는 인식 과정을 형태 심리학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형태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망막이나 뇌의 기록된 시각적인 것 내지 자극의 자연 발생적인 평형화에 의하여 어떤 대상의 정합성(coherence) 내지 패턴을 알 수 있다고 한다.(Polanyi, 1983: 6) 우리는 세목 그 자체를 의식하지 않고도 우리가 인식하는 대

상 가운데서 혹은 우리가 활동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알 수 있다. 형태 심리학은 ‘시각적인 것의 자연 발생적인 평형화’에 대하여 말하면서 ‘아는 것’으로의 개인의 능동적 참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이 점은 폴라니가 좀 더 발전시킨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통찰로부터 시작해서 폴라니는 증거를 모았다. 이후 정확한 자신의 지식 이론을 가장 분명하게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Richard Gelwick, 1997: 62)

형태 심리학의 이론적 구조는 폴라니의 사상에서 중요한 암묵적 지식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폴라니는 철학 분과의 인식론을 형태심리학으로 대체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의 인식론을 새롭게 만드는 가운데 형태심리학을 수용하여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인격적 지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다. 따라서 폴라니가 제시하는 인식론이 자연화된 인식론의 경향을 보일 수 있지만, 과인이 말하는 극단적인 자연화를 언급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화된 인식론에서 좀 더 발전된 온건한 자연화된 인식론⁸⁾을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덕 인식론적 경향

덕 인식론의 출현은 윤리학자들 사이에 일어난 덕 윤리학의 부활에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영감을 받았다. 그 이후로 덕 인식론은 지식에 있어서 지적인 덕 개념에 중요하고 근본적인 역할을 준 인식론의 최근 경향의 축적물이다. 소사는 토대론과 정합론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에 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첫번째의 정당성은 그들 가치의 위대한 공헌을 통해서 덕과 다른 기질을 부여하고, 행동을 위한 착실한 기질을 부여한다. 두 번째 정당성은 덕 안에 있는 그들의 근원적 덕에서 또는 다른 그런 정당화된 기질에서 특별한 행동을 부여한다.

그와 같은 전략은 인식론에서 풍부하게 증명될 수 있다. 여기서, 첫 번째의 정당성은 우리에게 참을 얻게 하기 위한 그들의 더 큰 공헌을 통해, 지적 덕과 믿음 획득을 위한 안정된 기질을 부여한다. 두 번째 정당성은 지적 덕과 또는 다른 그러한 정당한 기질들 내에서 그들의 근원적 덕 안에 특별한 믿음을 부여할 것이다.

그것은 윤리학과 인식론에 대한 평행적 질문을 야기한다. 우리는 도덕적 덕과 지적 덕의 구별과 덕의 개념에서 더욱 조심스런 사고를 필요로 한다. 인식론에서 지적 덕의 대부분 유용하고 계몽적인 관념은, 우리의 전통이 제안될 것이고, 그리고 주제와 그의 고유의 본질뿐만 아니라 그의 환경과 인식적 공동체에서 기인한다는 것보다 더 폭넓게 증명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커다란 관점이고, 어쨌든 내가 바라는 것으로써 우리의 몇몇은 지금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공간, 그리고 통찰력으로 돌릴 것이다.(Ernest Sosa and Jaegwon Kim(eds.), 2001: 148)

8) 과인과 같이 극단적으로 전통적인 인식론을 버리고 행동주의 심리학으로 대체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철학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서 많은 이들이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철학을 버리고 행동주의심리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자연화된 인식론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 한 것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극단적인 자연화된 인식론을 수정하고 온건한 자연주의를 주장하는 골드만, 콘블리스와 같은 자로 인해서 논의가 발전되고 있다. 한상기, 「자연화된 인식론과 인식론의 자율성」, 『범한철학』, 제35권 (2004), 49-54. 참조.

현대 인식론자들이 아직 완벽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덕 인식론이라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덕 인식론 역시 게티어의 반례를 극복하고자 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난 것이다.(Ernest Sosa and Jaegwon Kim(eds.), 2001: 435-437) 폴라니는 자신이 덕 인식론자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주장을 살펴볼 때 덕 인식론자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⁹⁾ 우선, 인격적인 헌신이 높은 도덕적 의무의 수준으로 나아가야 됨을 강조한다.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될 때에는 권력과 이익이라는 야망의 수준에 머물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높은 도덕적 의무를 수행하는 자신의 선택일 수 있겠다. 이러한 높은 도덕적 의무를 수행할 때 진리의 다양한 부분을 열어두고 지식에 대한 헌신과 열정을 끊임없이 주장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수용될 수 있는 점이다.(폴라니, 헤리프로시, 1994: 286) 따라서 폴라니의 인격적 지식은 실천적 지식을 넘어서 ‘열정과 헌신을 포괄한다. 그래서 인격적 지식은 주관과 객관을 통합하며 책임과 노력을 강조한다.

둘째, 우리가 인격적 헌신을 함에 있어서 공동체 안에서 상호조정방법의 합의(consultation)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상호조정의 방법을 시행할 때는 책임감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이 생긴다. 이것은 진리에 대한 활동을 시행하게 된다.(Michael Polanyi and Harry Prosch, 1975: 206)

셋째, 인격적 지식은 공동체적이다.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고 가짜 지식을 가려내며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른다. 따라서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의 정서적 연회(conviviality)를 통한 긴밀한 의사소통 행위를 한다. 이러한 인격적인 지식은 공동체 간의 연회를 유지하면서 지적인 신중함과 공정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폴라니의 경우는 믿음에 있어서 덕의 기능적 측면과 성품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폴라니는 인격적 지식을 제시하면서 덕 인식론적인 경향성을 보인다.

V. 폴라니의 믿음과 기독교의 믿음개념

1. 기독교의 믿음과 유사점

폴라니가 언급한 믿음과 기독교의 믿음의 유사점을 살펴보자. 우선 권위를 믿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유사하다. 폴라니는 믿음을 권위에 근거해서 믿는다고 하였다. 근대 과학자들은 베이컨과 데카르트, 로크와 흄 같은 그들의 철학적 변론가들에 도움으로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폴라니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과학을 할 수 없

9) 폴라니는 덕 인식론자로 자처하지는 않았다. 덕 인식론에 중요한 영역을 미친 사람은 매킨타이어이다. 폴라니와 매킨타이어는 1970이후부터 종종 의견을 주고받고 토론을 하였다. 두 사람은 근대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덕의 의미심장한 것과 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념의 중요함을 논의 하였으며, 신학적 토론을 하였다. 참조 Mark T. Mitchell, *Michael Polanyi: the art of knowing*, (Willington :ISI, 2006), 154-162.

다고 말한다.(Michael Polanyi and Harry Prosch, 1975: 189-190) 그들은 대부분 권위에 대해서 언급하면 아무런 대화의 요소가 없이 침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폴라니가 말하는 권위는 과학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권위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말하는 권위는 단지 어느 특수한 점에서 이의를 포용할 뿐 아니라 그러한 창의적인 이의에 대해서는 최고의 용기 역시 허용한다. 또한 제출된 연구물이 현재 수용되고 있는 사물의 성격에 관한 관점과 모순될 때 과학의 제도적 장치는 그 연구물을 혹독하게 억압하지만, 반면 관념이 함의하는 바가 수용되고 있는 이 관점을 날카롭게 수정하리라고 기대되면 동일한 과학적 권위는 그 관념에 대해 최고의 경의를 표한다.(Michael Polanyi and Harry Prosch, 1975: 206)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계시에 대한 권위를 믿는 것을 말한다. 즉 구원에 대한 계시의 권위를 믿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열어 보이시는 것이다. 진리를 사람에게 전하시며,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알려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나타나셔서 알리시는 등의 하나님 자신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넓은 측면에서 보면 폴라니가 말하는 믿음과 기독교에서 언급하는 믿음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나타난다.

2. 기독교의 믿음과 차이점

그렇지만 유사한 점이라고 권위에 대해서 넓은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믿음에 대한 차이는 없다.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 보게 된다면 명백한 차이점이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폴라니가 믿는 일반계시의 차원에서 권위를 믿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일반계시는 자연, 역사(歷史), 양심 속에 나타나 있다. 또한 일반계시는 자연과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현상을 매개로 전달된다. 모든 지적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전달되며 따라서 누구나 일반계시에서 접할 수 있다. 자연, 역사, 양심이라는 부분은 폴라니가 말하는 일반계시의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권위를 믿는 것은 과학이라는 공동체가 인정하고, 그 시대가 받아들이는 전통을 수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의 측면에서 본다면 특별계시에서 나타난다. 종교적 믿음 역시 계시에 대한 권위를 믿는다. 이것은 계시를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로 나눈다. 특별계시(特別啓示)는 특수한 시대에 특수한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진리를 알리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계시가 반드시 그 시대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진실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적과 놀라운 기적을 땅의 만민에게 전파하라는 당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시105:1, 2) 말하자면 특별계시는 온 세상이 공유할 하나의 보배인 것이다. (눅2:10, 마28:19, 20, 행1:8) 그 중에서도 인간의 구원, 구속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별계시에서는 다섯 가지가 있다. 첫

째는 기적에 나타난 특별계시이다. 둘째는 예언에 나타난 하나님에 관한 특별계시이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에 관한 계시이며, 넷째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관한 계시이다. 다섯째는 개인적인 체험에 나타난 하나님에 관한 계시라고 할 수 있다.

3. 믿음개념에 대한 건설적 비판

폴라니는 논리 실증주의를 논박하고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시도를 하고 진리를 옹호하는 데 앞장섰다. 그러나 폴라니는 믿음이라는 영역에서 주체 인식자의 성품과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참과 관련해서 이것들이 진실한 이유에 대한 적절한 기초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그의 저서에 종종 종교적 동기들을 제시하였지만, 그 진리가 인식론적으로 진리로 알려지는 방법과 기초를 제시하는 데는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폴라니는 진리를 주장함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쿤의 입장과 유사하게 전문가 집단이 공유하는 믿음, 가치기준, 연구방법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우선 믿음만 언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즉 진리에 대한 언급도 함께 논변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합의와 전통을 강조함으로써 패러다임과 패러다임이 공존할 경우, 어느 것이 더 우수한 패러다임인지 비교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폴라니의 인격적 지식을 인식론에 적용하게 될 때 지식의 일반화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주장한 인격적 지식에 있어서 믿음의 형성과정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일반화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단지 참과 거짓을 가리는 것에 있어서 공동체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지만 일반화함에 있어서 다양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폴라니가 제시한 지적 덕목에 있어서 개인적인 편차가 발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헌신에 있어서 인격자의 참여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격자의 열정과 헌신으로 인해서 다양한 능숙함과 기술로 지식의 정당화를 보증하는 데 편차가 발생될 수 있다. 인식의 내면화에 나타나는 발견과 헌신, 소명이라는 세 단계를 체계적으로 논증하고자 하는데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너무 약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기준점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라니가 고찰한 믿음의 개념은 근대 이후 새롭게 평가될 수 있는 개념이다. 근대 이후 학문의 영역에서 믿음의 영역과 학문의 영역은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간주되었다. 두 영역이 각각 자기 세계를 내세우며 둘 사이에 어떤 관계 맺기도 거부하는 경우이다. 말하자면 믿음의 세계는 그 나름의 성벽을 높이 쌓고 바깥 학문 세계와 단절한 채 그 성 안에 머물러 있고자 하였고 학문의 세계와 맞닿으려는 것 자체가 믿음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타락과 세속화의 길이라고 믿었다. 또한 학문의 세계도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폴라니에 따르면,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알

고 있는 지식'의 존재를 간과해 버리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폴라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랫동안 간과했던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영역을 새로운 차원으로 해석하였다. 믿음의 영역이나 학문의 영역은 현실 세계 속에서 언제나 불완전한 상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영역도 절대화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절대적 세계가 있다면 그것은 '초월'의 차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표상하는 학문뿐만 아니라 믿음의 세계도 그 초월의 빛 아래 놓여 있어야 한다. 바꿔 말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조차도 그 절대적 초월 밑에서 극복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VI. 나가는 말

오늘날 지식과 인격의 상관성에 대한 믿음은 유감스럽게도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폴라니는 인간과 분리된 객관적 지식의 허구를 비판하고, 지식을 인격적 헌신의 구조로 규정하는 인식론의 새 장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인격적 지식'이라는 새로운 지식 개념을 통해, 인식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암묵적 차원의 지식이 과학지식의 요체라는 것을 많은 증거를 들어 설명한다. 그리고 과학지식의 원천으로서 숨겨진 '실재'(reality)를 발견하려는 과학자의 열정과 신념 및 공동체와의 교섭이 진정한 객관성의 의미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사상 가운데 특별히 인격적 지식의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인격적 지식의 개념 중심적인 개념이 믿음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필자는 마이클 폴라니의 믿음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믿음을 인정 한다 그리고 받아들인다, 수용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폴라니에게는 믿음을 단순한 차원에서 평가하지 않았다. 그는 과학과 형이상학은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믿음에 대한 타당성을 논증하였다. 또한 폴라니는 믿음의 개념을 모든 지식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며 믿음이 없이는 어떤 지식도 있을 수 없다고 논증한다. 더 나아가 믿음에는 인식자의 헌신이 담겨있다고 언급한다. 그는 믿음이 발견, 헌신, 소명이라는 단계로 발전한다고 논변하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기독교의 믿음과 폴라니가 언급하는 믿음에는 권위를 믿는다는 점에서 있어서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인격적인 지식이 기독교 인식론에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첫째, 권위에 대한 믿음의 토대를 강조한다. 둘째, 지식의 초월성이다.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지를 인정하고 과학에도 기독교 계시를 인정해야 된다고 한다. 셋째, 지식의 인격적인 헌신을 강조한다. 폴라니는 헌신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보편적 의도를 가진 인격적 확신의 확언을 위한 정당 근거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의 믿음 개념의 인식론적인 위치는 세 가지의 영역으로 나타나는데 정합론적인 경향과 온건화된 자연화된 인식론, 덕 인식론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폴라니는 의심이 진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진리로 이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폴라니의 믿음개념에 있어서 비판할 점이 있다면, 믿음

의 일반화의 문제와 다양한 패러다임이 공존하고 있는 영역에 있어서 진리치를 부여하는 엄밀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앞을 정의함에 있어서, 현대인식론자들은 정당화된 참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학문의 엄밀성과 정확성을 획득하고자 노력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폴라니가 언급하는 인간의 성격과 자질, 지식에 대한 열정과 양심, 학문 공동체의 권위 등을 통해 오는 자유는 상실하고 말았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폴라니의 믿음개념을 분석하였다. 그의 인식론에서 특징적인 것은 기존의 인식론을 세우기 위해 신앙을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틀'을 인식론의 토대로 삼은 것이다. 폴라니의 인식론에 있어서 주요개념은 '인격적 지식'이다. 필자는 인격적 지식이 인간과 분리된 객관적 지식의 허구를 비판하고, 지식을 인격적 현신의 구조로 규정하는 이론으로 인식론의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폴라니가 신앙이란 감정이나 의지의 작용만이 아니라 지성을 포함한 전인격을 바쳐 참여하는 인격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 논문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즉 오늘날 객관주의적 인식론에서 무시되어 온 믿음 개념을 폴라니의 측면에서 새롭게 부각시켰다. 폴라니의 믿음개념에 따르면, 믿음은 공동체적이며 도덕적인 지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참 고 문 헌

- 강영안, (1996) 『주체는 죽었는가: 현대철학의 포스트 모던적 경향』 서울: 문예.
_____, (2002) 『인간의 얼굴을 가진 지식』 서울: 소나무.
김기현, (2005) 『현대인식론』, 서울: 민음사.
마이클 폴라니, (2001), 『개인적 지식』, 표재명 역 서울: 아카넷.
_____, (1990), 『과학, 신념, 사회』, 이은봉 역 서울: 범양사.
_____, (1992), 『지적자유와 의미』, 김하자&정승교 역 서울: 범양사.
- Allen, R. T., (1992), *Transcendence and Immanence in the Philosophy of Michael and christian Theism*, Lewiston, NY:Edwin Mellen.
- Ernest Sosa and Jaegwon Kim (2000), (eds.) *Epistemology An Anthology* Oxford: Blackwell.
- Fairweather, A. and Zagzebski, L., (eds.), (2001), *Virtue Epistemology: Essays on Epistemic Virtue and Responsibi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elwick, Richard, (1997), *The way of discovery : an introduction to the thought of Michael Polanyi*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ontmarquet, James. (1992), "Epistemic Virtue," *A Companion to Epistemology*, (eds.) Jonathan Dancy and Ernest Sosa Oxford: Blackwell.
- Polanyi, M. & Prosh, H. (1975), *Meanin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olanyi, M. & Prosh, H. (1974), *Scientific Thought and Social Reality* F. Schwartz(ed), Psychological Issue. Vol. VIII. Monograph.
- Polanyi, M., (1940), *The Contempt of Freedom: The Russian Experiment and After* London: C. A. Watts.
- _____, (1967), *The Tacit Dimension* Garden City: Doubleday & Company.
- _____, (1948), *Full Employment and Free Trad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69), *Knowing and Bein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62), *Personal Knowledge: Towards a Post Critical Philosophy* New York/Evanston: Harper & Row.
- _____, (1946), *Science, Faith and Society* Ch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97), *Society, Economic, Pilosophy: Selected Papers by Michael Polanyi, ed by R. T. Allen*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 _____, (1951) *The logic of Liberty: Reflections and Rejoinder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